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아티노게니스 사제순교자

마태오 제7주일

제4차 세계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키리코스와 성 율리다 순교자

제6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토م 성찬예배에서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 교부들의 찬양송 / 85. B 178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디도 3,8-15 / 봉독서 538-539
- 복음경 : 마태오 5,14-19 / 163. B 155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아티노게니스 사제순교자

스승의 덕은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스승이 가르치고, 스스로 그 가르침에 따라 모범을 보이며 실천할 때 제자들과 군중들은 큰 감동을 받고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마태오 5: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의 덕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7월 16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아티노게니스 사제순교자(† 311)

와 그의 열 명의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티노게니스 성인의 큰 덕과 겸손은 주교좌에서도 빛을 발하여, 열 제자들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스승과 제자들은 함께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어디서든지 덕이 있는 말씀은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히브리서 4:12)

세상의 빛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로마 2,13)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지만, 판단의 기준이 통치자에 의해서 또는 그릇된 우상 숭배에 의해 좌우지 되고 편향되어 올바르지가 못했다. 하느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인격 형성을 하여 살게 함이었다.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태초의 모습에 가까이 다다가 살게 하려 했던 것이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선과 악의 뚜렷한 기준이 없었지만 율법으로 인해 그 기준이 뚜렷해져서 다른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율법의 존재를 귀찮게 생각하였다.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합리화시키며 편하게 살다가 율법에 의해 모든 삶에 제약이 따르자 사람들은 하느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였다. 하느님의 존재를 더 이상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아가는 구속자로 여기고 적대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를 포기하고 구속을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었다. 태초에 낙원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악을 모르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악의 구속에 빠져 자유를 빼앗기고 만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고자 율법을 만들어 사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악에 구속되어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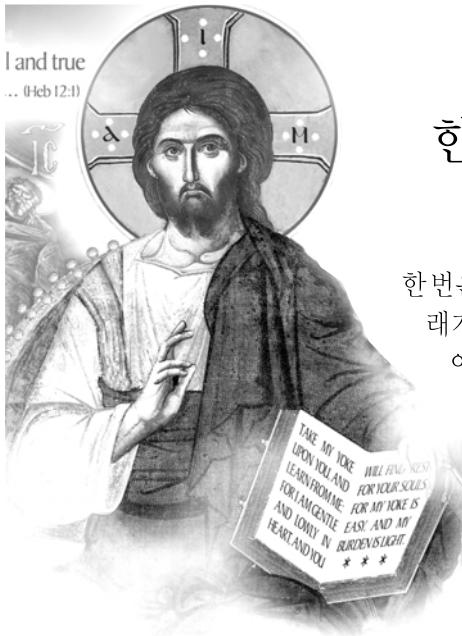
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악에 길들여져 있어 그 법조차 무시하고 악용하였다. 율법은 형식으로 치우쳐 버리고 몸과 마음은 또 다시 하느님을 떠나 그릇된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배신하는 짓을 수시로 했지만, 사랑의 하느님은 사람들을 사탄의 늪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은 하느님께서 세상에 직접 오셔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 이렇게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다. 회개를 통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은총의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더 이상 율법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 구원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오 5,16)

하지만 오늘날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에 치우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마태오 7,21)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한번은 어떤 아버지가…

한번은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가 모래가 있는 곳에서 놀게 하였다. 아버지가 보고 있으려니 아이는 눈에 띄게 짜증을 내는 모습이었다. 누군가 커다란 돌을 아이가 놀고 있는 모래밭 한 가운데 두었던 것이었다. 아이는 그 돌을 집어 들려고 했으나 너무 무거웠다. 돌을 굴려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힘들었다. 자기 등을 돌에 대고 다리에 힘을 주어 밀어보려고도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아빠, 이리 저리 다 해봤는데 도저히 이 돌을 모래밭 바깥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였다.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아들아, 넌 다 해보지 않았단다.” 그러자 아이가 말하였다. “아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돌을 들어보려고도 했고, 굴려보려고도 했으며, 밀어보려고도 했지만 어떤 것도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허리를 구부려 돌을 들어서는 모래밭 바깥으로 옮기고 나서 말하였다. “아들아, 봤니? 넌 모든 방법을 다 쓰지 않았단다. 곧, 넌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오늘 여러분이 옮길 수 없는 삶의 무거운 돌이 있습니까? 움직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나요? 모든 수단을 다 써보셨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청해 보셨나요? 이런 경우 때때로 단순히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룬답니다: “하느님, 전 할 수가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세요. 그러면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주님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시편 121편 1-2절)

▶ 아타나시아



소식

대교구

■ 여름 수련회(English Camp) ▷ 올해도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초등부(7월 30일 ~8월 4일), 중·고등부(8월 4일~6일) 여름 수련회(English Camp)와 신데즈모스(7월 27일 ~29일)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적 신앙생활에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룩한 사업인 수련회에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당 사무실로 오늘 15일까지 꼭 신청해주십시오.

참가비는 초등부 : 15만 원, 중·고등부 : 5만 원, 신데즈모스 : 5만 원입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여름 수련회 ▷ 올해는 ‘좋은 말과 행동’이라는 주제로 초등 1부(7월 27일~29일), 초등 2부, 중·고등부(7월 30일~8월 1일), 신데즈모스(8월 20일~22일) 여름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영적 생활에 큰 성장을 가져올 수련회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간 예식

■ 7월 17일(화) ▷ 성 마리나 대순교자, 성 베로니카 순교자 축일

■ 7월 20일(금) ▷ 엘리야 예언자 축일

각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